

# 순암 안정복의 경학관과 역학에 관한 일고찰

이영호 \*

- 
1. 서론
  2. 안정복의 경학관
  3. 안정복의 경전해석
  4. 안정복의 易 해석의 일면
  5. 마무리
- 

## ■ 국문요약

성호 좌파라 일컬어지는 권철신, 이병휴,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계통이 비교적 주자학에 비판적이었다면, 順菴 安鼎福으로 계승된 성호 우파는 주자학에 대하여 계승(혹은 비판적 계승)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안정복의 경학을 살펴보면, 新義의 긍정과 朱子說의 고수라는 두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성호 좌파가 경전해석에서 舊說에 대한 회의와 新說의 발현으로 기울었다면, 안정복은 어디까지나 주자의 경전해석에 대한 고수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경전 해석을 수용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구설인 주자 경설과 신설인 성호의 경학을 통합적으로 구현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안정복의 이러한 경학관은 그의 경전 해석과 易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안정복의 경학은 주자 주석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왕왕 懷疑에 의한 新義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질적 주석의 소통을 통해 양자를 통합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안정복 경학의 특징으로 기왕에 거론

---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 E-mail: lyh6896@skku.edu

된 '주자주 준수', '하학 지향' 외에, '통합적 사유'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순암 안정복, 성호 우파, 주자주 준수, 신의, 통합적 사유

## 1. 서론

번암 체제공과 방산 허훈에 의해 제시된 근기실학에서 경제치용학과의 사승관계를 살펴보면, 퇴계 이황에서 한강 정구, 미수 허목,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하려 황덕길, 성재 허전으로 이어진다.<sup>1)</sup> 이른바 성호 우파이다. 한편 성호 좌파라 일컬어지는 녹암 권철신, 정산 이병휴, 다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계통이 비교적 주자학에 비판적이었다면, 순암 안정복으로 계승된 성호 우파는 주자학에 대하여 계승(혹은 비판적 계승)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성호라는 큰 뿌리에서 지향이 다른 유학적 이념이 분기함으로써 조선후기 유학사는 다채롭고 질적으로도 고도화 될 수 있었다. 이는 성호가 주자학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수용 혹은 비판적 양상의 일면을 후대에 한쪽으로 치중하여 수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 우파는 주자학 수용에 성호 좌파는 주자학 비판으로 말이다. 그런데 성호의 사상이나 경학은 이렇게 좌우파로 나뉘어서만 전승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논문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호 우파로 평가받는 順菴 安鼎福(1712~1791)의 경학이 비록 성호 우파적 성향이 농후하였지만, 성호 좌파적 지향 또한 있었음에 착안하여 작성되었다. 안정복의 경학관과 경전주석에는 분명 이 양자의 통합적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

1) 이우성(1999), 36면.

이에 본고에서는 기왕의 안정복 경학에 대한 논의<sup>2)</sup>를 바탕으로 그의 경학관과 역학 해석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한한 안정복 경학에서 역학 해석, 특히 건괘 폐사의 해석에는 그의 이러한 경학적 특징이 잘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 2. 안정복의 경학관

안정복의 경학관은 그가 주자학을 바라보는 입장과 연동되는데, 여기서 성호의 학문이 가지는 의미가 지대하다. 아래 예문을 보면서 이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 ❶ 黃德吉, 『順菴先生行狀』

오직 우리 退溪夫子만이 멀리 考亭의 道統을 이었고, 성호선생만이 퇴계부자의 統緒에 곧바로 접하여 道學의 전수에 근원이 있다. 선생은 이미 성호에게 切磋琢磨를 받았고, 모범을 삼는 바는 오직 퇴계에 있었으니,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하는 바는 주자를 배우는 것이었다. …… 퇴계의 도는 선생을 기다려서 이어지고 성호의 학문은 선생을 얻어서 드러났으니, 선생의 성대한 덕과 큰 업적은 先儒들을 집대성했다고 할 만하다.<sup>3)</sup>

2) 함영대(2013)에 의해 정리된 안정복 연구의 현황을 보면, 그의 사학, 성리학, 사회사상, 서학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경학 연구는 3중에 불과하다. 이 봉규(2000), 함영대(2008), 엄연석(2009)은 각각 안정복의 경학 전반, 맹자학, 역학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혔다.

3) 『順菴集』, 『順菴先生行狀』. “惟吾退溪夫子遠紹考亭之統, 星湖先生直接退溪之緒, 道學之傳, 有自來矣. 先生切磋琢磨, 既承於星湖, 楷模準繩, 惟在於退溪. 若溯其源頭, 則所願學朱子也. …… 退溪之道, 待先生而傳, 星湖之學, 得先生而著. 先生盛德大業, 可謂集羣儒之成矣.”(이하 『順菴集』에서 인용한 글들의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국역을 전재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에 의거하여 원문표점과 번역에 약간의 가감을 하였다.)

## 2 「函丈錄」

인하여 『孟子』를 논하였는데, 『疾書』의 春王正月 및 井地에 대해서 논한 辯을 내어 보이고는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朱子를 논박하는 一大妄論이지만, 바로 주자의 忠臣이 되고자 하는 뜻인 것이니, 아마 주자가 보더라도 크게 비난하여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말씀하셨다. “『중용』과 『대학』을 읽으면 구절마다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글을 읽으면서도 의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학문이 진전되지 않는 것이다.”

또 말씀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詩 300편의 의미를 한마디로 개괄하면 ‘생각에 사투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주자의 『集傳』을 보면 음란한 시가 많다. 주자는 비록 ‘악한 자도 이를 통하여 그 악을懲創할 수 있다’고 하지만, 鄭風과 衛風의 淫奔詩로 연주하고 노래 불러서 蕩자와 情女로 하여금 이를 듣도록 하고는, 말하기를, ‘너는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집전』에서 말한 음분시가 모두 음분시는 아닐 것이다.”<sup>4)</sup>

## 3 「權省吾-日身-에게 보낸 편지」

가만히 보면 요즘 제군들의 經學이 새로운 뜻을 발견한 것도 있고, 前人들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만 주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앵무새처럼 말만 잘한다는 기롱을 면할 수 없고, 이후로 驚天動地할 말이 더욱 쏟아져 나와 급기야는 六經에 온전한 글이 없게 될 터이니, 이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군자의 학문은 비록 경전의 뜻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만, 자기 마음만을 존숭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경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집안에 어진 父兄이 있어 한 마디 말과 하나의 행실이 모두 다 자손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만 한

4) 『順菴集』 卷之十六, 「函丈錄」. “因論『孟子』, 出『疾書』, 論春王正月及井地辨以示之. 笑曰: ‘此駁朱子一大妄論, 卽欲爲朱子忠臣之意也, 恐朱子見之, 不大非斥也.’ 又曰: ‘讀『庸』, 『學』, 節節有疑, 今人讀書無疑, 故學不進.’ 又曰: ‘子曰詩三百, 一言而蔽之, 曰思無邪. 今觀朱子『集傳』, 則淫亂之詩多, 朱子雖云惡者可以懲創之, 而以鄭衛淫奔之詩弦歌之, 而使蕩子情女聞之, 曰爾勿爲淫想也, 此不成說矣. 『集傳』所謂淫奔之詩, 未必皆淫奔之詩也.’”

두 번의 잘못은 없지 않다면 그 한두 번의 잘못 때문에 전체를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程朱로 말하면 후세의 亞聖이자 斯文의 부형 격인데, 사람이 자기 어진 부형을 헐뜯는다면 과연 선량한 자제가겠습니까? 나의 소견은 이와 같을 뿐입니다.<sup>5)</sup>

이른바 성호 우파의 적전인 하려 황덕길은 안정복의 행장을 쓰면서 그 학통의 연원을 1에서 보듯이 주자에게서 찾고 있다. 주자에게서 발원한 이 학맥은 퇴계를 거쳐 성호로 내려오다가 안정복에 계승되면서 집대성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안정복은 주자, 퇴계, 성호의 학통을 독실하게 지킴과 동시에 이를 집대성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황덕길의 이러한 평가에 의하면, 안정복뿐 아니라 성호 또한 주자와 퇴계에 대한 존신이 매우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성호의 주자에 대한 존신은 단순한 추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호는 주자의 경전주석을 고수하는 것이 주자를 존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에서 보듯이, 성호는 『맹자』에 주석을 달면서 주자의 경설을 논박하고 나서, 자신을 가리켜 ‘주자의 충신’이라 칭하였다. 주자도 자신의 이러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침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성호의 경전해석의 지향은 어떠한가? 성호 경학에 관하여 연구한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바로 경전을 읽으면서 생기는 ‘회의’와 이를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얻어지는 ‘자득’이었다. 성호는 윷글에서 『대학』과 『중용』을 읽으면서 구절마다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이 구절은 아마도 경문을 의미한다기보다, 이 경문에 달려 있는 주석을 가리

5) 『順菴集』 卷之六, 「與權省吾-日身-書」. “竊觀近來諸君經學, 實有透得新義, 發前未發者, 而若徒致力於此, 未免能言之歸, 而向後驚天動地之論, 愈出愈奇, 而六經無全文, 此豈成說乎? 君子之學, 雖在明經, 而師心自用, 則經亦何用哉? 以近而易知者言之, 家有賢父兄, 其言行可爲子孫之法則, 而不無一二之錯誤, 則以其一二之錯誤, 掩其大體, 可乎? 程朱是後世之亞聖, 而斯文之父兄也. 人若詆訛其賢父兄, 則是果爲良子弟乎? 愚見如是而已.”

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상 다른 글에서 성호는 주자의 『대학』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주자에 의해 淫詩說이 제기된 이래, 주자의 시설은 毛詩와 쌍벽을 이루는 『시경』 이론으로 정착하였다. 그런데 성호는 주자의 음시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성호의 경설은 주자를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주자와 일정 거리가 있다. 그리고 성호는 자신의 이러한 경설은 주자를 잘 배운 결과라고 자평하였다. 이처럼 성호는 회의를 경학의 중요 방법으로 내세웠기에, 주자학에 비판적인 성호 좌파의 견해는 성호학의 이 지점에서 연원하는 듯하다. 실제로 권철신, 이병휴는 주자와 다른 견해를 세웠고 성호는 이들의 학문적 역량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성호 사후, 이들에 의해 주도된 성호 좌파의 경학은 新義를 내세웠기에 참신하였는데, 서인 정권하에서는 일면 위태롭기까지 하였다. 당시 70여 세의 안정복은 이 점을 예리하게 간파하였다. 하여 3에서 보듯이 권철신의 아우인 권일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게 가르침을 내리고 있다. 경설의 신의만을 좇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하였다.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경설을 만든다면, 도대체 종래 성현에 의해 창작된 경전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둘째로 程朱는 집안으로 치면 어진 부형 격인데 이들을 헐뜯어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설혹 부형이 한두 가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전체 면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주자의 경설에 설혹 한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안정복의 성호에 대한 존모의 념은 지극하였다. 이는 스승과의 짧은 만남의 기록인 「함장록」에 잘 나타나 있다.<sup>6)</sup> 이처럼 성호의 인품과 그 학문에 대한 존모의 념이 지극하였던 안정복은 성호의 경학에 내재된 회

6) 「함장록」의 분석은, 임형택(2013) 참조.

의와 자득의 정신과 자신의 주자 경설을 준수하는 자세를 어떻게 상호 조정하고 수용하였을까? 그 답을 우리는 「함장록」의 아래와 같은 대담에서 찾을 수 있다.

(성호 선생이)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程朱 이후로는 經書의 文義가 크게 밝혀져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으니 단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 이 말이 대개는 옳지만 그대로 타당하지 못한 점도 있다. 성현이 후인에게 바라는 바는 의리를 講明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 그 뜻이 어찌 더 이상 미진한 바가 없다고 여겨 후인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겠는가. 이는 程朱의 본뜻이 아니다.”

라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감히 여쭙습니다. 이에 는 또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덕행이 성립하고 知解가 탁월한 사람이라면 참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初學 後生들이 지식이 아직 부족한데도 오로지 지식만 위주로 하여 前輩들에게 잘못을 찾으려고 한다면 필시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남다른 것에 힘쓰는 버릇이 생기고 전배들을 경시하는 병통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가 법도를 잘 지키자는 주장(謹守規矩)이 진실로 법도를 세우는 大經일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 선생께서,

“참으로 그렇다.”

라고 하셨다.<sup>7)</sup>

위의 글을 보면, 성호는 정주의 경설을 묵수하는 것에 반대하고 경전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야말

7) 『順菴集』 卷之十六, 「函丈錄」. “又曰: ‘世人皆謂程朱以後, 經書文義大明, 無復餘蘊, 只當遵之而已. 此說大槩然矣, 猶有未安. 聖賢之所求於後人者, 欲以講明此義理. 其意豈謂之無復餘蘊而不使後人言之耶? 此非程朱之本意也.’ 余對曰: ‘敢稟. 此亦有兩般. 若行成德立, 知解卓越者, 誠如所教. 若新學後生知識未定, 而專以知解爲主, 求過于前輩, 則必有好新務奇之習, 有輕視前輩之患. 然則謹守規矩之論, 實是立法之大經. 未審?’ 先生曰: ‘誠然.’”

로 주자 경학의 본의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성호의 견해에 대하여 안정복은 주자 경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과 주자 경학을 넘어서려는 스승 성호의 관점을 병치시키는 묘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성호처럼 덕행이 확립되고 지혜가 탁월한 경우 주자를 넘어서는 경전의 신의를 제시할 수 있지만, 초학 후생들은 주자의 주석을 준수하는 ‘謹守規矩’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안정복에 의하면 경전의 신의는 적어도 주자, 퇴계, 성호 정도의 선현만이 제시할 수 있고, 나머지 학자들은 선현이 제시한 주석을 ‘謹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정복 경학관의 일단은 新義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과 기존 주석에 대한 고수의 양면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안정복의 이러한 경학관은 그의 서간문에 잘 드러나 있다. 안정복은 종래 주자학과의 주석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는 성호의 경전주석인 『질서』에 대하여 ‘정밀한 이치가 드러난 주석’으로 극찬하면서,<sup>8)</sup> 당대의 비난에 대하여 적극 옹호하였다.<sup>9)</sup> 또한 이와는 달리 주자의 주석을 넘어서서 신의를 제기하는 성호의 후학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비판하였다.<sup>10)</sup> 이는 안정복 경학관에 내재된 신의의 긍정과 주자설의 고수라는 두 측면이 여실하게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비록 반면의 긍정이기는 하

8) 『順菴集』 卷之二, 「上星湖先生書」. “然若『疾書』之屬, 明睿所照, 精義自發, 如使一向緘默, 不爲筭錄, 則後人何述?”

9) 『順菴集』 卷之二, 「上星湖先生別紙」. “前日在京時, 不知者三四人謂觀『疾書』, 多所指斥, 雖不與語, 而心甚不安; 此不過瞻借之際, 初是相好間二傳三傳, 或掛于時眼也.”; 『順菴先生文集』 卷之二上, 「星湖先生書」. “前日下書, 有欲知『疾書』中指摘之論. 今世人大抵嘵嘵好譏謗, 豈能知書中意而如是耶?”

10) 『順菴集』 卷之六, 「答權旣明書」. “公每謂: 『大學』古本自好, 不必改定.’ 又謂: ‘格致章自存, 不必補亡.’ 又謂: ‘聽訟章, 似無着落.’ 此非公自得之見, 先儒已爛漫言之矣. 愚意則常謂讀章句爛熟, 其於朱子本意, 一句一字, 皆有下落, 然後始觀諸說, 觀其議論而已. 今無積累專精之工, 而客見新義橫在肚間, 率爾曰此是而彼非; 其於進學之工, 有何益? 而公所謂義理頭腦, 似不在此等處矣.”; 『順菴先生文集』 卷之六, 「答權旣明 哲身 別紙」. “我之私衷, 橫在肚裏, 却以先儒之說, 求合於己, 是甚不可. 若然則我去自做一般文, 何必苦苦讀古書乎?”

지만 성호 좌파의 경학관이 안정복에게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그의 경전해석에 엄연하게 드러나는 면모이기도 하다.

### 3. 안정복의 경전해석

안정복의 경학이 지니는 특징에 대해서는 이봉규, 함영대에 의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안정복의 경학은 ‘주자설의 준수’,<sup>11)</sup> ‘하학의 중시’<sup>12)</sup> 등의 특징이 있음이 밝혀졌다. 전자의 주장이 성호 우파적 성격으로 안정복의 경학을 규정한 것이라면, 후자는 성호 좌파의 성격이 안정복 경학에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필자는 앞서 안정복의 경학관은 주자학 중심이면서도 주자학에서 벗어난 창신의 지점을 동시에 수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종래 안정복의 경학을 성호 우파와 성호 좌파에 치우쳐서 논의한 내용을 수용한 바탕 위에서, 이 양자가 상호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안정복은 경전관은 구설의 준수와 신설의 발현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안정복의 이러한 경학관은 그의 『대학』 해석에 그 일단이 보이기도 한다. 다음은 『대학』 청송장에 대한 안정복의 창견이다.

---

11) 이봉규는 안정복의 시경학, 역학, 서경학, 대학설, 예학 등을 분석하고서, 주자의 해석체계에 간혀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주희의 성리학적 체계를 고수함과 동시에 성호 좌파의 학문방식에 본원의 확립이 결여된 것을 비판하며 ‘謹守規矩’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평가하였다.(이봉규(2000), 89면)

12) 함영대는 안정복의 학문관을 하학중심으로 규정하고서 그의 경학이 성리학의 지반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실천성을 보완한 것이라고 하였다.(함영대(2008), 61면)

『聽訟章』의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에서 ‘無情’은 無知란 말과 같다. 無知한 자는 비록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事理를 辨釋하여 자기 뜻을 전달하지 못하니, 官長이 된 자가 반드시 인도하고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뜻을 다 말하게 해야만 民情이 위로 통하여 막힐 염려가 없게 될 것이다. ‘大畏民志’의 ‘畏’ 자는 『서경』의 “두려워할 것은 백성이 아닌가. [可畏非民]”의 ‘畏’ 자와 같다. 民志의 向背에 따라 治亂이 나뉘니, 어찌 크게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일찍이 보건대, 세상에 관리가 된 자 중에는 이미 明德의 공부가 없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릴 때에 간특한 속임수가 있을까 염려하여 반드시 먼저 사나운 위엄을 보여 백성으로 하여금 감히 입을 열어 眞情을 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많으니, 이 어찌 孔子의 聽訟의 뜻이겠는가.

장구에서 ‘實’로 ‘情’을 풀이했기 때문에 또 ‘虛誕’ 두 글자로 對를 맞추어 말했으니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이것이 혹 一說이 될 만하지 않겠는가.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질정을 하는 것이 先賢이 후진에게 바라는 바이기에 주체님께 논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기록해 둔다.<sup>13)</sup>

필자는 20대에 『대학장구』를 공부할 즈음, 온통 그 경문(주자주)이 이해가 안 되었다. 격물치지, 성의, 정심은 번역은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인간의 심성을 논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한 적이 없었기에, 몰이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대학장구』 전4장인 청송장은 인간의 심성에 대한 논

13) 『順菴集』 卷之十一, 「經書疑義」. “聽訟章,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 無情猶言無知. 無情者, 雖有冤屈, 不能卞釋事理, 導達其意, 爲官長者, 必也誘導開曉, 使之自盡其意, 然後民情上通而無壅隔之患矣. ‘大畏民志’之畏, 與‘可畏非民’之畏同, 民志之向背而治亂判焉, 豈非大可畏者乎? 嘗觀世之爲官者, 旣無明德之工, 而御民之際, 恐有奸僞, 必先施威虐, 使民不敢開口而盡其情者多矣. 此豈夫子聽訟之意乎? 章句以實訓情, 故又以虛誕二字對舉而言之, 終有所疑. 此或備一說否? 有疑必質, 先賢之所望於後進, 故僭論志疑.”

의가 아니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복종시켜 거짓말을 못하게 한다는 해석이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시간이 지나 심성론을 공부하면서 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문이 풀렸지만, 후자는 여전히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안정복은 이 경문에 대하여 주자와 해석을 달리하면서 독자의 마음을 납득시키는 풀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먼저 주자의 해석과 그에 의거하여 이 경문을 독해하면 다음과 같다. 주자는 聽訟章의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에서 ‘情’을 백성들의 ‘진심(진실)’으로 이해하였으며, ‘辭’를 ‘허탄한 말’ 즉 ‘거짓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大畏民志’에서 ‘백성들의 마음(뜻)’을 두렵게 하는 존재는 위정자라고 설정하였다.<sup>14)</sup> 이렇게 이 경문을 이해하면, “진심이 없는 백성들이 송사에서 거짓말을 다 할 수 없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명덕을 밝힌 위정자가) 백성들의 마음에 크게 경외심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정도로 의역이 될 것이다. 주자의 해석대로라면, 진심 없이 거짓말로 남을 무고하고자 하는 백성들도 위대한 정치가의 덕화에 감화되어 저절로 마음에 경외심이 생겨나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안정복은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의문을 정당하게 뒷받침할 문헌적 증거를 찾아서 마침내 이 구절을 주자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우선 안정복은 ‘情’을 주자처럼 백성들의 ‘진심(진실)’으로 이해하지 않고, 백성들의 ‘지식’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면 ‘無情者’는 ‘진심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지식이 없는, 즉 무식한 자’가 된

14) 『大學章句』, 「傳四章」. “情, 實也. 引夫子之言, 而言聖人, 能使無實之人, 不敢盡其虛誕之辭, 蓋我之明德, 既明, 自然有以畏服民之心志, 故訟不待聽而自無也.”

다. 그렇게 되면 ‘不得盡其辭’의 ‘辭’도 주자처럼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 된다. 안정복의 방식대로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무식(무지)한 백성들은(비록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진심이 담긴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정도로 이해가 된다. 그리고 뒷 구절의 주체를 위정자로 본 것은 주자와 동일하지만, 주자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크게 경외심을 가지게 했다’로 읽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읽었다. 그리하여 이 두 문구를 안정복의 독법대로 연결하여 의역하면, “무식한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담보한 말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위정자는 백성들의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야 되니, 항상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주자와 안정복의 해석 모두 문맥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이지만, 주자의 해석은 인간세상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기에 공허하게 다가오고, 안정복의 해석은 그 먼 중국이 아니라 조선의 당대에 절실한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기에 더 께진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해석의 말미에 안정복은 “이것이 혹 一說이 될 만하지 않겠는가.”라고 겸사를 하였지만, 그야말로 겸사이다. 이 해석의 말미에서 ‘(주자의 해석처럼 읽는다면) 이 어찌 孔子의 聽訟의 뜻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안정복 자신의 해석에 대한 자부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주자와 상당히 다른 지점에서 이 경문을 독해한 안정복은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질정을 하는 것이 先賢이 후진에게 바라는 바이기에 주체님께서 논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기록해 둔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성호가 지녔던 경전주석 자세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는 성호 좌파로 이어진 경학의 핵심논리이다. 그러나 안정복의 이러한 경전주석 태도는 성호 좌파의 그것과 결이 다르다. 성호 좌파가 경전해석에서 구설에 대한 회의와 신

설의 발현으로 기울었다면, 안정복은 어디까지나 주자의 경전해석에 대한 고수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경전해석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안정복 경전해석의 또 다른 특징으로 經義와 經義를 서로 소통(통합)시켜 이해하는 ‘以經通經’의 방식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지만, 조선 주자학파의 경학의 주된 경전 해석방식은 주자주에 대한 존신과 부연, 그리고 소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었다.<sup>15)</sup> 퇴계 이래 율곡학과, 영남 퇴계학파가 공히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경전주석방식은 안정복의 경학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안정복의 경설을 모아 놓은 「경서의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자의 경설에 대한 존신<sup>16)</sup>과 소주에 대한 비판<sup>17)</sup>이 왕왕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정복은 종종 서로 다른 경전의 의미를 연관시켜 경의 본지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이경통경의 방식으로 경전을 이해하곤 하였다. 이는 조선주자학과 경학자들에게서도 보이기는 하지만 실학과 혹은 탈주자학파의 경전주석방식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석방식이다. 아래 예시를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나는 늘 생각건대, 『중용』은 『周易』의 繫辭傳에서 나왔고 『孟子』는 『중용』에서 나왔으니, 문장의 필세도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sup>18)</sup>

② 『주역』은 卦를 인하여 象을 취했고, 『시경』은 物을 인하여 興, 比

15) 조선주자학파의 경전해석방식에 대해서는, 이영호(2019), 참조.

16) 『順菴集』 卷之九, 「與鄭子尙書」. “後世學問, 捨濂洛而無他, 朱子說爲天下後世之所宗師, 此可爲終身受用而無盡者矣.”

17) 『順菴集』 卷之十一, 「經書疑義」. “王立於沼上章, 靈臺小註, ‘言其倏然而成, 如神靈所爲, 故謂靈臺.’ 按靈臺是望氛視察灾祥, 以爲占驗之所, 故謂之靈. 小註說恐未必然. 或曰: ‘靈, 善也.’ 詳詩義.”

18) 『順菴集』 卷之九, 「答南釋簡履默書」. “愚常妄謂『中庸』出於『繫辭』, 『孟子』出於『中庸』, 文章筆勢, 亦甚相似.”

를 했고, 『춘추』는 사람의 선악과 일의 시비를 인하여 褒貶을 하였으니, 그 뜻은 같다.<sup>19)</sup>

③ 『대학』 1장과 『중용』 1장은 말은 다르나 뜻은 같다. 『대학』의 ‘明明德’이란 것이 바로 『중용』의 ‘天命之性’, ‘率性之道’이고, 『대학』의 ‘新民’이란 것이 바로 『중용』의 ‘修道之教’이고, 『대학』의 ‘知至’란 것이 바로 『중용』의 ‘致中和’이다.<sup>20)</sup>

안정복은 ①과 ②에서 보듯이 『주역』의 계사전의 문장과 『중용』, 그리고 『맹자』의 문장의 필세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역』의 괘를 통한 상의 취함, 『시경』의 물에 의거하여 흥과 비를 일으킴, 『춘추』의 선악과 시비를 통한 포폄 등은 모두 그 서술방식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한편 안정복은 유가의 경전은 그 형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에서는 상통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③의 문장에서 보듯이 안정복은 『대학』 경1장의 핵심개념인 ‘명명덕’과 ‘신민’을 『중용』 1장의 핵심 연구인 천명, 솔성, 수도와 연계하여 그 상동성을 찾고 있으며, 『대학』의 ‘치지’는 『중용』의 ‘치중화’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사서와 삼경의 형식과 내용을 상호 소통시켜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이경통경’의 경전이해 방식은 안정복 경학의 또 다른 면모라 할 것이다. 이는 종래 언급된 안정복 경학의 ‘주자설 준수’, ‘하학적 성향’에 이어서, 앞서 언급한 ‘신설의 수용’과 더불어 그의 경설의 한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 『順菴集』 卷之十一, 「經書疑義」. “『易』因卦而取象, 『詩』因物而興比, 『春秋』因人之善惡事之是非而褒貶, 其義一也.”

20) 『順菴集』 卷之十一, 「經書疑義」. “『大學』, 『中庸』首章, 語異而意同. 其云明明德, 卽天命之性, 率性之道, 其云新民, 卽修道之教, 其云知至, 卽致中和.”

## 4. 안정복의 易 해석의 일면

안정복의 경학을 정치하게 분석한 논문으로 엄연석의 「순암 안정복의 『周易』 인식과 象數義理論」을 거론할 수 있다. 상기 논문에서 엄연석은 『순암집』에 나오는 역학 관련 글을 대부분 분석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안정복은 象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互體卦와 爻變說과 같은 방법적 기준을 중시하였으며, 義理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卦名과 함께 卦爻 사이의 比應 관계와 같은 방법 기준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안정복은 『주역』은 象數와 義理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理는 占에 의지하고 占 또한 理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주역』을 이해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기본으로는 의리역학적 목적을 가지는 입장에서 상수역학의 이론을 수단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사고전서총목제요」 ‘경부총서’에서 언급한 이래, 경학 역사를 지탱하는 두 축으로 흔히 漢學과 宋學을 거론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2000년 중국경학사를 고증적 한학과 의리적 송학이 상호 승부를 겨룬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인물에 따라 때로는 이 양자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였다. 조선의 경우, 엄연석의 주장에 따르면 안정복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 중의 한 분이었던 것이다. 상수역학(한학)과 의리역학(송학)을 통섭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정복은 자신의 『주역』 공부의 여정을 언급하면서, “평소 『주역』을 읽으면서 『程傳』과 『本義』에만 의지하여 추측한 것이 이와 같은데 불과할 따름이니, 이 밖에 별다른 뜻이 이면에 또 숨어 있는지는 모르

---

21) 엄연석(2009), 64면.

했습니다.”<sup>22)</sup>라고 하였다. 안정복의 이러한 진술은 조선시대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역학 공부의 기본서로 인식된 『주역전의대전』을 통해 『주역』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자의 『역전』과 주자의 『역본의』를 합본하고서 이에 소주를 단 『주역전의대전』은 명대 영락제 때 편찬된 뒤, 몇 년 뒤에 조선으로 전래되어 광범위하게 읽혀졌다. 안정복의 역학 공부의 원천도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주역전의대전』은 조선에 전래된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정자와 주자의 역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정자의 『역전』은 의리역이며, 주자의 『역본의』는 의리역적 요소가 가미된 점서역이다. 이는 이 책을 읽어본 이라면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주역전의대전』의 전래 이래 가장 열렬한 애독자 중의 한 사람이 바로 世祖였다. 세조는 이 책에 대한 독서를 넘어서 신하들로 하여금 구결의 초안을 마련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그 구결을 확정하였다. 이른바 『康寧殿口訣』<sup>23)</sup>이 그것이다. 그러면 『강녕전구결』은 정자와 주자의 해석 중에 무엇을 채택하였는가? 다음의 기록을 보자.

상이 하교하기를, “내가 보기에 『易』의 傳 중에 程子の 傳은 매우 잘 통하지만, 朱子の 傳은 간혹 막히니, 주자의 전이 정자의 전에 심히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자의 전을 가지고 口訣을 정하였다.” 하였다.<sup>24)</sup>

22) 『順菴集』 卷之四, 「與尹承宣 光毅 別紙」. “平日讀『易』, 不過依倣傳義推度如此, 而不知更有別般意思藏在裏面矣.”

23) 세조의 어정 『주역』 구결은 『周易傳義』를 저본으로 하여 경문에 구결을 붙인 것으로, 卷首題에 ‘周易傳義’라고 되어 있고 권수제 아래에 ‘康寧殿口訣’이라고 되어 있다. 세조구결(『康寧殿口訣』)은 현재 국내에 전체 24권 중 권1~6, 권16~18, 권20~21만이 남아있는 零本이다. 이 중 권 1~6, 권16~18은 연세대학교 고문서자료실에, 권20은 규장각에, 권21은 국립중앙도서관 일산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原刊本을 復刻한 책 24권 12책 全帙이 일본의 천황궁 자료실인 宮內廳 書陵部에 전하고 있다.(서혜준(2018), 각주 2)와 3)에서 인용)

이 기록을 보면, 세조는 주자의 『역본의』보다 정자의 『역진』을 우위에 두고, 『주역』 경문의 구결도 정자의 역설에 의거하여 달았다. 이후 이 책은 御定口訣로 불리면서 상당 기간 조선 『주역』 구결의 정본이 되었다. 사정이 변한 것은 선조대에 이르러서였다.

『眉巖集』 「經筵日記」 선조 7년 10월 25일

『주역』의 大文은 光廟(世祖)께서 『程傳』에 의거하여 토를 단 것이니, 이는 의론이 미칠 바가 아니고, 다만 마땅히 『本義』를 가지고 大文의 구결을 붙인다면 지금 예전에 해놓지 않은 것을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sup>25)</sup>

「周易校正廳宣醞圖記」

昭敬大王(宣祖) 말년에, 『역진』과 『본의』가 서로 다른 점이 있어, 句讀와 음과 해석을 양쪽 다 存置해야 했다. …… 대개 신축년(1601, 선조34)에 시작하여 계묘년(1603, 선조36)에 마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3년이 걸렸다.<sup>26)</sup>

선조대에 정자의 『역진』에 의거하여 토를 단 『강녕전구결』에 대한 보완으로서 주자의 『역본의』도 현토하여 존치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의견은 수용되어 마침내 교정청본 『주역언해』에는 정전과 주자본의에 의거한 현토가 병존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언해본이 바로 이것이다.<sup>27)</sup> 이후 조선역학사에서 정자의 주석과 주자의 주석에 대한

24) 『國朝寶鑑』 卷13 「世祖朝四」. “教曰: ‘予觀『易』傳中, 程傳甚通透, 朱傳或礙滯, 朱之不及程遠甚, 故予以程傳定爲口訣.’”

25) 『眉巖集』 卷18 「經筵日記」. “『周易』大文, 光廟據『程傳』而懸吐, 此則非議論所到, 只當以『本義』爲大文口訣, 則今當補前日之所未有…….”

26) 『星湖全集』 卷53 「周易校正廳宣醞圖記」. “昭敬大王末年, 以『周易』傳、義互有不同, 句讀音釋, 當須兩存. …… 蓋始於辛丑終於癸卯, 首尾三年.”

27) 이상 『미암집』과 『성호전집』의 글은 서혜준의 앞의 논문을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전개양상도 이 논문에 상세하다.

선택 혹은 통합은 항상 관심사였다. 그러면 안정복의 역학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원형이정을 이치(理)를 위주로 하여 말하면 四德이 되고 占을 위주로 하여 말할 때는 大亨이 되고 利於貞이 됩니다. 성인의 말씀은 말은 간략해도 뜻이 원만하여, 體와 用을 겸해서 말하고 理와 數를 포괄해서 말하였으니,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易이라는 것이 원래가 卜筮를 위주로 한 글이기 때문에 원형이정은 다 점을 위주로 한 뜻이지만 사덕의 이치도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역을 점 위주로만 풀이할 경우, 혹시라도 術數쪽으로만 빠져 易理가 애매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덕을 나누어 말했고, 그리고 대형정의 뜻은 애당초 문왕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자는 그 중에서 비교적 중점을 둔 쪽으로 말했으므로, 문왕은 점을 위주로 하고 공자는 이치를 위주로 한다고 했지만 원래는 점이 이치를 벗어날 수 없고 점 속에는 이치가 들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은 두 성인이 말한 易이 사실은 같은 셈입니다.<sup>28)</sup>

위의 문장은 『주역』 건괘 과사인 ‘元亨利貞’에 관한 안정복의 해석이다. 주지하다시피 ‘원형이정’은 정자와 주자에 의해 각기 다르게 해석된다. 정자는 이 경문을 의리학적 관점에서 四德으로 파악하였으며, 주자는 이 경문을 점서학적 관점에서 占辭로 파악하였다. 때문에 이 경문을 정자의 의리학적 관점에서 토를 달고 해석하면, “乾은 元하고 亨하고 利하고 貞하다(현토: 元코 亨코 利코 貞하니라)”가 되며, 주자의 점서역

28) 『順菴集』 卷之三, 「答邵南尹丈別紙」. “元亨利貞, 主理而言則爲四德, 主占而言則爲大亨而利於貞. 聖人之言, 辭簡而意備, 兼體用包理數, 不可以一偏言. 然而易之爲書, 專爲卜筮, 故元亨利貞, 皆爲主占之義, 而四德之理, 實寓於其中. 孔子恐其專主卜筮, 則或流於數術, 而易理不顯, 故分言四德, 而大亨貞之義, 與文王初不異矣. 朱子就其較重處言之, 謂文王主占, 孔子主理, 元來占不外於理, 理亦寓於占, 則二聖之易, 未嘗不同矣.”

적 관점에서 토를 달고 해석하면 “크게 형통하고 진실이 이롭다(현토: 元亨하고 利貞하니라)”가 될 것이다. 세조는 정자의 주석을 준신하여 구결을 달았기에, 『강녕전구결』에서 이 경문에 토를 달면서, “元코 후코 리코 진실하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정복은 이 양자의 해석과 구결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대신, 이 양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일단 안정복은 “원형이정을 이치[理]를 위주로 하여 말하면 四德이 되고 占을 위주로 하여 말할 때는大亨이 되고 利於貞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 구결이 정자와 주자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주역』은 원래 점서이지만, 의리적 요소가 본래부터 동시에 구비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주자의 점서역의 원류인 문왕의 관점과 정자의 의리역의 원천인 공자의 관점을 제시하고서, 점이 이치를 벗어날 수 없고 점 속에는 이치가 들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은 두 성인이 말한 易이 사실은 동일하다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앞서 엄연석은 안정복의 역학이 상수역과 의리역의 통합이라고 기술하였는데, 건괘 괘사에 대한 해석을 보면 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조선역학사에서는 이 지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이 구결에 대한 조선 경학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4가지 유형으로 그 해석의 양상을 정리할 수 있다. 예시를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sup>29)</sup>

① 정주설의 통합적 이해: 柳成龍, 「乾元亨利貞說」

『정전』에서는 원·형·리·정을 네 가지의 덕이라 하였고 『본의』에서는 점사라 하였다. 『정전』은 곧 공자의 설이고 『본의』는 문왕의 뜻을

29) 이하 아래에 예시로 든 경설(①~④)의 번역과 원문은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 DB’에서 전재하였다.

이르니,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가? ..... 건괘는 하늘이다. 하늘은 이 네 가지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이 있고, 따라서 이런 말이 있을 뿐이다. 元은 큼이고 亨은 형통함이며 利는 마땅함이고 貞은 바름이다. 만일 건괘에 이 네 가지 덕이 없다면, 어디로부터 이런 상이 있고 이런 말이 있을 것이며, 점치는 자도 어디로부터 크게 형통하고 곧고 견고함(貞固)에 이ро울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본다면, 문왕의 역이 바로 공자의 역이다. 『본의』에서 비록 점치는 일을 위주로 별도로 설명하였으나, 요컨대 『정전』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의문하는 자들은 『본의』를 주로 하고자 하여 『정전』을 없애도 된다고 하니, 이는 이른바 “어리석은 사람의 면전에서 꿈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程傳』, 以元亨利貞爲四德, 『本義』, 以爲占辭, 蓋傳乃孔子之說, 而本義謂文王之意, 二者當何適從. .... 乾者天也, 天具此四德, 故有此象, 而因有此辭耳. 元者大也, 亨者通也, 利者宜也, 貞者正也. 若乾無此德, 則何自而有此象有此辭, 占者亦何自而得大通利於貞固乎. 以此觀之, 則文王之易, 乃孔子之易. 『本義』雖主於占筮別爲一說, 而要不出『程傳』範圍之內. 今之議者, 欲主『本義』, 而謂『程傳』可廢, 所謂癡人面前不得說夢.)

## ② 주자의 설 지지: 李顯益, 「周易說」

어떤 이가 “원·형·리·정이 비록 점사로 지어졌을지라도 그 뜻을 살펴보면, 크면서 또 형통하고 이로우면서 또 곧음을 이른다. 건괘는 다른 괘보다 본래 특별하기 때문에 점사에 경계의 말을 하지 않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봐도 통하지만 점사라고 하는 것이 옳다. 점을 쳐서 이 괘를 얻은 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비록 점을 쳐서 이 괘를 얻었을지라도 어찌 모두 경계하지 않고 이치럼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괘보다 본래 특별할지라도 그 안에서 말한 것이 반드시 모두 성인의 일만은 아니니, 점을 쳐서 이 괘를 얻은 자가 또한 반드시 곧은 뒤에야 이로울 것이다. 『본의』의 설명은 바꿀 수 없다. (或曰, 元亨利貞, 雖作占辭, 看其義, 則謂大且通利且貞矣. 蓋以乾卦此他卦自別, 故其占辭不用戒, 而如此也. 如此看亦通, 然所謂占辭是. 以筮得者言, 則雖筮得此卦, 豈能皆不待戒而如此耶. 雖比他卦自別, 而其中所言, 未必皆聖人事, 則筮得者, 亦必貞然後利矣. 『本義』說不可易也.)

③ 정자의 설 지지: 李炳憲, 『易經今文考通論』

건은 괘의 이름이고, 원·형·리·정은 괘의 점사이다. 공자가 이를 취하여 경문으로 삼음에 건괘에서만 네 가지 덕의 이름으로 구별하였으니, 그 뜻이 『문언전』에 자세하다.(乾, 卦名, 元亨利貞, 卦之繇辭. 孔子取以爲經, 特於乾卦, 以別四德之名目, 義詳文言.)

④ 정주설에 대한 언급이 없음: 李瀾, 『易經疾書』

이상 ①~④까지의 주역 건괘 괘사에 대한 주석은 각기 정자와 주자의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두 주석 간의 괴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①류성룡의 해석은 실상 조선역학사의 원두에 위치한 양촌 권근<sup>30)</sup>에게서 그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후 정주설의 통합적 이해의 전통은 조선역학사에서 면면하게 내려와, 19세기 말의 蔡鍾植의 『周易傳義同歸解』까지 그대로 계승이 된다.<sup>31)</sup>

한편 주자의 설에 대한 지지와 정자의 설에 대한 지지 또한 조선역학사에서 나타난다. ②의 주자의 설에 대한 지지가 ③의 정자의 설에 대한 지지보다 빈번하게 보이며, ④처럼 정주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조선역학사에서 정주의 易說의 同異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은 이 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①)이다. 안정복의 역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안정복

30) 『周易淺見錄』, 「乾卦 卦辭」. “文王之辭, 本占法也. 孔子解作四德. 蓋占筮之所以有吉凶, 亦由是理之所自然者爾. 故筮得乾者, 其占爲大通而利於貞者, 亦以是卦有是四德故也. 非是別爲一說, 以異於文王, 故可並觀而不相悖也. 文王周公之辭, 直因卦爻之象, 以言占筮之法, 孔子之傳, 又因其辭, 以明占筮所以有吉凶之理. 程子本孔傳以演義理, 朱子本文王周公之意, 以明占法, 前後聖賢, 互相發明也.”

31) 『一齋文集』卷五, 「周易傳義同歸解」. “『程傳』, 推義理, 而從孔子彖傳, 故以四德釋之. 『本義』, 主卜筮, 而原文王本旨, 故以大通而利在正固解之, 各是發明一理耳. 然乾占之所以大通, 而利在正固者, 以其天道之有大通而至正也. 天道之所以大通而至正者, 以其有四德而然也, 然則孔程之推說, 自不妨於『本義』, 而只是一串道理也.”

역학의 일면은 조선역학사적 전통에서 그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소 이질적인 해석-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에 있다고 할 것이다.

## 5. 마무리

이상으로 우리는 안정복의 경학관과 경서해석, 그리고 그의 역 해석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기왕의 연구에서 안정복의 경학은 주자설의 준수, 또는 하학 지향 등으로 규정되었다. 안정복의 경학에 대한 이러한 앞선 이해는 타당하다. 그런데 이렇게만 안정복의 경학을 규정하면, 성호 경학의 계승은 안정복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성호를 존송하고 배우고자 했던 안정복이 선생과 길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임형택 선생은 성호학의 실학적 요인은 안정복의 경학에서 찾을 수 없고, 그의 『동사강목』 같은 역사서와 『잡동산이』 같은 박학서를 통해 계승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sup>32)</sup> 그러나 필자가 고찰한바, 안정복의 경학에는 종래 언급된 요소 외에 분명 신의를 근간으로 하는 성호 경학의 일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안정복은 자기 경학의 근간인 주자 경설에 대한 준수와 선생인 성호의 경학정신을 통합적으로 구현하였다. 안정복의 이러한 경학관은 그의 경전 해석과 역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안정복의 경학은 주자 주석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왕왕 회의에 의한 신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질적 주석의 소통을 통해 양자를 통합하여 구현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안정복 경학의 중요한 정신으로 우리는 기왕의 '주자주 준수', '하학 지향' 외에 '통합적 사유'를 거론할

---

32) 임형택(2013), 36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참고문헌〉

『大學章句』

『國朝寶鑑』

『周易淺見錄』

『眉巖集』

『星湖全集』

『順菴集』

『一齋文集』

한국고전종합DB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 DB

서혜준(2018), 「『주역언해(周易諺解)』를 통해 본 조선조 『주역(周易)』 번역의 양상」 - 세조의 『강녕전 구결(康寧殿口訣)』, 퇴계의 『주역석의(周易釋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엄연석(2009), 「순암 안정복의 『周易』 인식과 象數義理論」, 『철학사상』 34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이영호(2019), 『동아시아의 논어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우성(1999),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順庵의 위치」, 『한국실학연구』 1집, 한국실학학회.

이봉규(2000), 「순암 안정복의 유교관과 경학사상」, 『한국실학연구』 2집, 한국실학학회.

임형택(2013), 「성리학과 실학의 관련성 문제 - 「函丈錄」의 분석 -」, 『한국실학연구』 25집, 한국실학학회.

함영대(2008), 「순암 안정복의 학문적 지향과 『맹자의의』」, 『한국실학연구』 16집, 한국실학학회.

함영대(2013), 「順菴 安鼎福 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국실학연구』 25집, 한국실학학회.

## A Study of Sunam An Jung Bok's Kyunghak and YeokHak

Lee, Young-Ho\*

While Kwon, Cheol-Shin, Lee, Byeong-Hyu, and Jeong, Yak-Yong known as Sung-ho's progressive followers are relatively critical to neo-Confucianism, Sung-ho's conservative followers inherited to Sunam An, Jeong-Bok receive a reputation of inheriting (or inheriting critically) from neo-Confucianism. However, examining Kyunghak of Sunam indicates that it is not necessarily the case.

In Sunam's view on Kyunghak, two aspects coexist: an affirmation to new interpretations and adherence to theory of ZhuXi. However, while Sung-ho's progressive followers are skeptical about an old theory and try to find a new theory in interpreting about Confucian texts, Sunam accepts new interpretations about Confucian texts based on the adherence to ZhuXi's interpretation about Confucian text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he integrated an old theory, ZhuXi's Kyungseol and a new theory, Sung-ho's Kyunghak.

Meanwhile, Sunam's view on Kyunghak also influenced his interpretations about Confucian texts and YeokHak. As a result, Kyunghak of Sunam not only focused on ZhuXi's annotations and but also often showed new interpretations through doubtful reasoning. And it showed the aspect of integrating the two through a communication between disparate annotations. Finally, it seems logical to argue that an 'integrated thinking' can be added as well as a 'compliance for ZhuXi's annotations' and a 'Hahak-oriented' as characteristics

---

\* Professor,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  
E-mail: lyh6896@skku.edu

of Sunam's Kyunghak.

### **Key Words**

Sunam An, Jeong-Bok, Sung-ho's Conservative Followers, Compliance for ZhuXi's Annotations, New Interpretations, Integrated Thinking

논문접수일: 2024.5.31., 심사완료일: 2024.6.17., 게재확정일: 2024.6.18.

